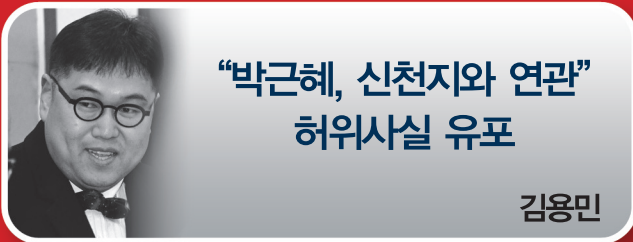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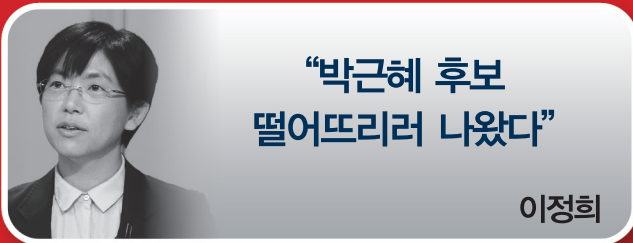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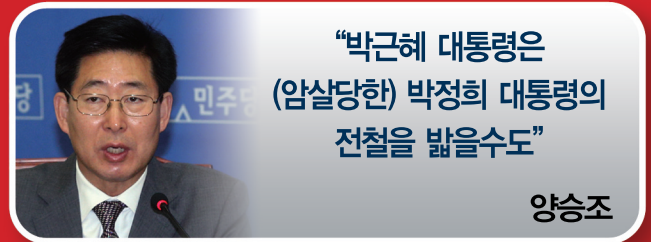


2012



2013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불복·테러선동

개인적 일탈인가, 숨겨진 당론인가
계속되는 대선불복 ‘떠보기’

“대통령직 도둑질” – 민주당 홍익표 (2013. 4)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 민주당 정청래 (2013. 7)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없는 첫 추석!” – 전 민주당 김용민 (2013. 9)

“명백한 부정선거” – 민주당 정세균 (2013. 10)

“선거문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 – 민주당 박지원 (2013. 10)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 민주당 문재인 (2013. 10)

“무자격자 하야” – 전 민주당 김용민 (2013. 10)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것” – 민주당 문재인 (2013. 12)

•
•
•

대선 다시 하면
민주당이
이길 순 있나?

– 국민생각

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양승조·장하나 의원을 출당·제명 하라!

북한에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에게는 왜 이토록 잔인한가?

■ 북한 관련 관대한 발언 3종

北김정은 위원장에게 예의 갖춰라 (2013. 4. 8 심재권 의원)

탈북대학생, 개념없는 변절자! (2012. 6. 1 임수경 의원)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더 믿음이 가 (2011. 6. 1 김광진 의원)

■ 대통령 관련 모진 발언 3종

(2013. 7. 14 이해찬 상임고문) 박정희가 누굽니까? 박정희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2013. 7. 11 홍익표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귀태(鬼胎 ·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 후손'입니다

(2012. 8. 7 이종걸 의원) 박근혜 그X!



민주당을 위한 민주주의 특강 박근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승복 연설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결과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 이제 잊어버립시다.
하루 아침에 잊을 수가 없다면 며칠 몇날이 걸려서라도 잊읍시다.”

*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은 '실질적인 대선 결승전'이었다.
경선 승자에게는 차기 대통령 자리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의원 투표에서 이겼으나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뒤져 1.5%차로 패했다.
박빙승부라 경선불복을 예상하는 사람이 다수였으나,
박근혜 후보는 즉시 경선에 승복해 정치사에 길이 남을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장하나
대선불복 발언,
대단히 부적절!

- 안철수 측
금태섭 대변인의 발언